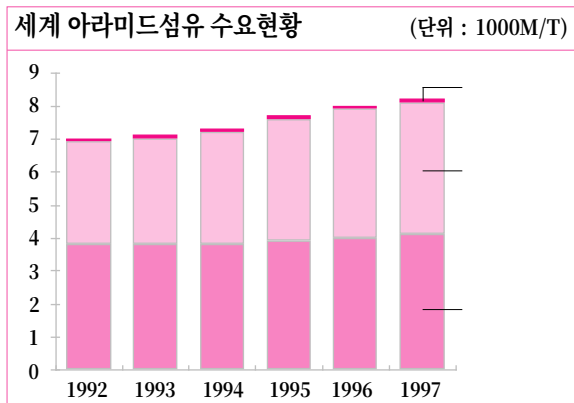


Akzo, 아라미드섬유사업 강화

95년 중반까지 연산 1만500톤으로 증설 ... 시장전망 밝아

Akzo Nobel은 향후 몇년동안 파라아라미드의 전세계 수요가 계속 증가하리라는 전망에 따라 아라미드 안과 고유동성 안, 펄프의 생산설비를 증설하기로 결정했다.



Akzo의 증설계획은 네덜란드 북부, 독일과의 국경지역에 인접한 Emmen소재 공장에서 추진될 예정이며 총 1억5000만Dfl (미화 8700만달러)를 투자해서 95년 중반까지 현재 연산 7000톤인 생산능력을 1만 500톤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Akzo의 이번 증설은 아라미드가 다른 산업용 섬유와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고 수요가 일정정도 대체될 것이라는 내부 결론에 따라 추진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Akzo는 지난 93년 아라미드섬유를 평균 Kg당 50Dfl씩 판매, 연간 총 3억5000만 Dfl의 매출을 올렸다. 또 최근 PX와 테레프탈

산의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Akzo의 아라미드 가격도 상승하고 있어 94년 매출액은 더욱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화학저널 1995/1/23>

